

한 눈에 보는 가습기 살균제 이슈 (2016년 8월 1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 조사 판정결과

(단위: 명)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판정불가	담당
합계	총합	695	171	87	110	321	-
	생존	506	87	58	95	261	
	사망	189	84	29	15	60	
1차	361	129	43	40	144	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차	169	28	23	21	96	1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차('16.8월 기준)	165	14	21	49	81	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 환경부 (2016년 8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단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를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 임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4단계로 판정
1단계: 거의 확실 / 2단계: 가능성 높음 / 3단계: 가능성 낮음 /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 판정불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판정 불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배경

1.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정착 겨울철 실내가 매우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거주자들은 실내 건조를 막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2. 대중매체 등에 의한 세균 공포의 확산 곰팡이와 세균이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으로 떠오른 사스, 신종플루의 사태에 따라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공포 증폭
3. 저출산 사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저출산에 따라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수 발생
4. 과학기술문명의 편리함을 좇는 사회 가습기를 청소할 필요 없이 살균제를 부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1년 이후 달라진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포괄하는 법률(환경부)로 1991년 2월부터 시행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 평가를 신청해야 하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시 심사신청 의무가 없어 한계 발생 이후 2015년부터 연간 1톤 이상의 등록 의무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 실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품질경영 및 생활화학용품 포함한 공산품 관리 관련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00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는 품공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주로 겉모양, 용량 또는 중량, 유해화학물질 등 제한된 정보에 한정되어 한계 발생해 문제 제기 없었음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보건복지부, 식약처)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 원인으로 제기된 이후 그 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도록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3호)

출처: 정남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 11권(2013) 및 관련 언론 기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일지

<p>1994년 (주)유공(현 SK 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광고 및 판매 시작</p> 	<p>1996년 11월 OCI의 계열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썩썩 가습기 당번' 출시</p> <p>동양공업화학(OCI 전신)에 입사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 대표를 지냈으며 이후 신 전 대표는 2010년 불스원 지분 44.35%를 인수해 독립</p>	<p>2000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PHMG로 변경</p>	<p>2000~2011년 국내 일부 제조사 및 유통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p> 	<p>2001년 3월 레킷벤커, 옥시 인수</p>	<p>2006년 복지부, 환경보건업무 환경부로 이관</p>	<p>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최초 공표,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하고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 권고 옥시레킷벤커, 정부 제품 수거 명령 발표 전 '옥시썩썩'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자발적 회수 시작</p>	<p>2011년 11월 4일 질병관리본부, 동물출입시험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중간 결과 발표, 사용중단 강력 권고</p>	<p>2011년 11월 11일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p>	<p>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가습살균제에 사용된 PHMG인산염과 PGH가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고 발표</p>	<p>2012년 8월 공경거래위원회, 옥시레킷벤커, 홈플러스, 세유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판정 옥시레킷벤커, 홈플러스는 이에 상소했으나 각각 2014년, 2013년 기각</p>	<p>2012년 11월 산업부, 생활화학제품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p>	<p>2012년 11월 질병관리본부, 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p>	
<p>2013년 8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 상정</p>	<p>2013년 11월 옥시레킷벤커 대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과 전달 및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기금을 발표</p>	<p>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 조사위원회, 1차 사례 조사 발표, 총 361건 접수</p>	<p>2014년 3월 옥시레킷벤커, 환경보건협회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기금 50억원 공식화</p>	<p>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p>	<p>2014년 8월 ~ 2016년 3월 옥시레킷벤커, 1·2등급 피해자 소송에 대한 범원 중재 합의 참여</p>	<p>2015년 4월 환경부, 2차 사례 조사 발표, 총 169건 추가 접수</p>	<p>2015년 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영구 방문 및 항의 시위</p>	<p>2015년 10월 UN 인권위원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 및 기자회견</p>	<p>2015년 12월 3차 피해신고 12월 31일에 마감, 752건 추가 접수</p>	<p>2016년 4월 18일 롯데마트, 사과 및 보상 전담 조직 설치, 보상 대상 및 기준 검토, 보상 재원 100억원 등 약속</p> 	<p>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커,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소통 부족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전달</p>	<p>2016년 4월 22일 환경부, 4차 피해 조사 신청접수 재개, 2017년 말까지 3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 또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외 다른 영향을 미치지지에 대한 지속적 조사 실시 발표</p>	<p>2016년 4월 26일 홈플러스, 사과 및 보상을 위한 독립적 기구 설치 약속</p> 
<p>2016년 5월 2일 옥시레킷벤커 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사과 전달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적절한 대책이 늦어진 점에 대한 책임 인정</p> 	<p>2016년 5월 6일 레킷벤커 그룹 CEO, 피해자 아버지와 만남 및 사과 전달</p>	<p>2016년 5월 20일 옥시레킷벤커, 피해자와 만남의 자리 마련, 다시 한번 사과를 전달하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p>	<p>2016년 6월 UN실무그룹, '인연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이행 점검 방안 및 기자회견담회</p>	<p>2016년 6월 18일 옥시레킷벤커, 피해자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2차로 마련해 사과 전달 및 배상 방안 논의</p>	<p>2016년 6월 26일 옥시레킷벤커, 피해자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3차로 마련해 사과 전달 및 배상 방안 논의</p>	<p>2016년 7월 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출범</p> <p>*국회 특위 조사 대상 (정부/기관)법무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공경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업) 옥시레킷벤커,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GS, 다이소, 코스트코, 헨켈 등 판매업체, 한빛화학, SK케미칼, 용이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캐비, CDI 등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p>	<p>2016년 7월 31일 옥시레킷벤커, 1, 2차 조사 1, 2 등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안 발표</p>	<p>2016년 8월 1일 옥시레킷벤커, 1, 2차 조사 1, 2 등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 접수 시작</p>	<p>2016년 8월 18일 환경부, 3차 조사 결과 발표 1·2등급 피해자 35명 추가 판정 (*CMIT와 MIT 피해자 2명 추가로 확인)</p>				

가습기 살균제 판매

 옥시레킷벤커 옥시썩썩 가습기 살균제 (PHMG)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PHMG)	 세유 가습기 살균제 (PGH, PHMG)	 애경 가습기 메이트 (CMIT, MIT)	 GS마트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CMIT, MIT)	 코스트코 가습기클러닝업 (PHMG)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 (BKC)
 SK케미칼(유공) 가습기 메이트 (CMIT, MIT)	 홈플러스 가습기 정정제 (PHMG)	 헨켈 훌리카 가습기 한변에 싹 (CMIT, MIT)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CMIT, MIT)	 다이소 산도캐비 가습기퍼니셔 (CMIT, MIT)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 (PGH)	

가습기 살균제 제조

한빛화학	메덴텍
SK케미칼	제너럴바이오
용마산업사	퓨엔코
케톡스	산도캐비
애경산업	글로앤엠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 배상·보상 방안

<p>옥시레킷벤커</p> <p>'준중', '공정', '투명', '신속'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족분들의 고통을 반영한 배상안을 2016년 7월 31일에 발표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 구축, 8월 1일부터 피해자 배상신청 접수 시작</p>
<p>롯데마트</p> <p>사과 및 보상 전담 조직 설치, 보상 대상 및 기준 검토, 보상 재원 100억원 마련 등 약속.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합의 추진하겠다고 발표</p>
<p>홈플러스</p> <p>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 정부기관과 협의해 원만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p>